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슬로건

'영화 표현의 해방구'

'18회 전주국제영화제'의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이 공개됐다.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이충지)는 '18회 전주국제영화제' 일정을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 영화의 거리 및 전주 일원에서 축제를 펼친다고 밝혔다.

올해 축제의 슬로건은 '영화 표현의 해 방구'로 결정하고 이를 모토로 포스터를 구성했다.

영화제 시무처는 "포스터는 여러 각도에서 비취지는 빛과 나비를 전면에 배치했다. 이는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화와 예술 표현의 자유를 지지해왔던 전주국제영화제의 정신을 형상화한 것"이라며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조직위는 이번 영화제 프로그램에서는 '지역영화 공모'를 처음 시행, 지역영화의 발굴 및 지원에 힘을 싣고자 한 점이 특기 할 만한 사항이라고 했다.

이번 공모에는 장편 5편·단편 37편 등 총 42편이 출품됐다. 그중 '한국단편경 쟁' 섹션에 1편, 초청 섹션에 5편이 선 전돼리

장편 〈천시는 바이러스〉(감독 김성준)가 코리아 시네마스케이프에, 단편〈주성치와 함께라면〉(감독 금태경)이 한국단편경쟁 에 편성됐다. 이와 함께〈숨바꼭질〉(감독 김진아), 〈빈방〉(감독 윤인상), 〈오늘의 중 력〉(감독 이시대), 〈선아의 방〉(감독 채한 영)이 코리아 시네마스케이프 단편에서 상영된다.

월드시네마스케이프 섹션을 재구성, 기존의 스펙트럼 마스터즈 이외에 도전적이고 급진적인 영화를 위한 새로운 섹션이 신설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8년 간 피청(일종의 영화 투자설명회) 프로그램으로 총 60여 편의 프로젝트를 지원한 전주프로젝트마켓 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및 제작을실현하고자 총 1억 원 규모의 전주시네마 펀드 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국내 유일의

Jeonju Intl. Film Festival

2017
0427
0506

Jeonju Intl. Film Festival

2017
0427
0506

'영화 표현의 해방구' 담은 포스터.

▶ 조직위, 기본계획 공개

"포스터, 여러 각도에 비춰지는 빛·나비 전면 배치 표현의 자유 지지해온 영화제 정신 형상화한 것"

'지역영화 공모'첫 시행··· 한국단편경쟁 섹션 1편 선정 월드시네마스케이프, 도전적인 작품 위한 새 섹션 신설

제작·투자사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전주프로젝트마켓과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연계 강화를 위해 전주시네마펀드 선정 작은 차기연도 '전주시네마프로젝트'를 우선시 한다. '전주시네마프로젝트 2017'으로는 (N 프로젝트)(가제·감독 이창재), 〈시인의 사랑)(가제·감독 김양희), 〈초행 〉(가제·감독 김대환) 세 편의 작품이 선 정됐다.

이외에도 지난해 야외상영장이었던 영화의 거리 내 옥토주차장은 '전주 스테이지'로 명칭이 변화한다. 영화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전북 지역 내 문화 단체와의 공동프로젝트를 기획, 야외상영과 공연을 결합시킨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주 스테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정해은 기자

창업발전소 선발팀 선정

전북문화콘텐츠진흥원, 15팀

전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원장 이신 후)은 창업발전소(비즈랩)에 선발된 15팀 을 선정했다.

전북도 콘텐츠코리이램은 미래 콘텐츠산 업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이디어융합프 로그램 및 창업발전소 등으로 운영된다.

앱(app)·공예·영상·웹툰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 오디션에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했다.

오디션에 지원한 39팀은 1인 미디어, 웹

드라마, 웹툰 등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콘텐츠부터 미래 산업으로 불리는 IOT 융 복합, VR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까지 다양한 창작물을 선보였다.

진흥원은 선정된 창착팀의 사업화 및 스타트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입주공간·시제품 고도화 ·홍보·인건비·전문 멘토링 등에 팀별 최대 1,500여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각 스타트업에 맞춰 홍보물 제작·언론 홍보 등의 지원 및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한 자문서비스와 함께 마케팅·컨설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정해온 기자



전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원장 이신후)은 창업발전소(비즈랩)에 선발된 15팀을 선정했다. 사진은 창업발전소 3기 비즈캠프.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 선정결과 발표

(재)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2017 지역문화 예술육성 지원사업'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업 선정은 사업별 내·외부 각계 전문가로 심의위 원회를 구성, 심의기준에 의거해 진행됐다.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은 문학・미술・공예・사진・서예・음악・무용・연극・전통・다원문화 등의 분야로 나눠 지원신청자들이 제출한 서류와 사업계획 심사를 진행했다. 올해 사업은 총 420건의 단체 및 개인에게 총 16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출판에 관심있는 분들 모여라"

완주군, 지역 청년 대상 '책책책학교' 운영

완주군이 출판과 책 제작에 관심 있는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완주군 책책책학교'를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과정은 출판전문가 입문과정으로, 출판 기획부터 콘텐츠 발굴, 편집, 디자인, 제작, 서점 유통까지의 전 과정을 익히고, 공공의 기록을 한권의 책으로 민들어 출판하는 과정을 배워보는 수업으로 진 해되다.

교육은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삼례문화예술촌 책공방북 아트센터에서 매주 토・일 2차례씩 진행될 예정이다.

완주군에 거주하는 청년층으로 지역·출판·기획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신청은 오는 3월 7일까지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문화예술과(290-2614), 삼례문화예술촌 책공방 북아트센터(070-8915-8126, 070-8915-8127)로 하면 된다. 이용렬 문화예술과장은 "완주군 책책책학교는 지역출 판의 근간을 마련하는 첫 단추로 이 과정을 통해 배출 된 전문가들이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신청을 위한 기반 확충 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기자



